



###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을 실천하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신록이 우거진 푸른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다. 가정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속에서 살면서 보람을 찾는 사랑의 보금자리다. 사랑이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는 생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5월에, 5월 5일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제101회 어린이날, 5월 8일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제51회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제60회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가 한 몸처럼 사랑하는 제29회 부부의 날이 있다.

세들은 짝짓기하면 알 낳을 동지인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사람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夫婦)가 되면 새로운 보금자리인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산다. 가정에서 사랑을 못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데 부부가 같이 노력하고 이것을 자녀가 몸소 배우게 해야 한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모여 사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을 말하며 부부 자식 부모 등 가족이 공동 생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도우면서 살고 있다. 가정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의 단위의 삶의 틀을 말하며 가정에는 인적 구성인 가족이 있고 가족이 모여 사는 물리적 주거환경인 집이 있다.

가정의 구성은 인위적 관계로 맺은 부부가 있고,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 할 자녀가 있다. 가정은 부부나 자녀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있고, 한집안에 부모 자녀 조부모까지 어울려 사는 대가족도 있다. 사회의 변천과 직업이 다변화되면서 직장을 따라가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으로 변천 발전하고 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은 주거 환경 속에서 같이 살며 같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가정은 서로 돕는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보금자리며 사랑이 없는 가정은 가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가정에서 어린이는 부부의 사랑

의 열매로서 희망이며 꿈이고 보람이다. 올해도 제101회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부모들은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여 실천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날이 지나 맞이하는 제51회 어버이날에는 생존해 계시는 어버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어버이를 기쁘게 하고 돕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나의 성장을 도와주시고 지식 기능 정보를 일깨워 주신 스승은 부모와 같아서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스승을 부모와 동격인 사부(師父)라고 한다. 제60회 스승의 날에는 사부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스승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면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나의 제자들도 스승을 찾게 될 것이다.

제29회 부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21일'로 정했다. 부부가 처음 맺어질 때 비록 남남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우자로 선택했고 수많은 일기처럼 친지 앞에서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사랑하고 도울 것을 맹세하고 부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부가 처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이 차츰 잊혀 가는 것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로 이해하고 돕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부부의 불화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부부로 맺은 혼인 서약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서로 믿고 도우며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부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며 자녀는 효심의 사랑으로 부모에 보답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에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을 배우야 한다.

가정에서 사랑이 결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므로,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돕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 데 힘써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효도로 부모를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존경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 멀티탭 올바른 사용법

기고

조경래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지휘팀장



전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지만 잘못된 사용방법과 함께 '설마 나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잖아'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감전사고와 함께 걸잡을 수 없는 대형화재로 번져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대의 전기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멀티탭'은 잘 쓰면 정말 편리한 도구이지만 모르고 쓴다면 큰 화재를 불러오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제품이다. 그렇다면 화재에 취약한 멀티탭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첫 번째는 『멀티탭 용량 확인하기』  
멀티탭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정격'이라고 적힌 부분이다. 정격이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의 최대 '허용용량'을 말하는데 만약 전류가 10A이고 전압이 250V인 제품이라면 두 숫자를 곱했을 때 나오는 2500W가 최대 정격 용량이 된다. 만약 정격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과부하가 발생해 전선 온도가 올라 내부가 타고 피복이 손상되면서 화산, 누전, 스파크, 폭발, 화재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전력 소모가 무려 3000W가 넘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벽에 달린 콘센트를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멀티탭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 전력량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두 번째는 『허용 전력량의 80%만 사용하기』  
전력량의 80%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전자제품 중에서 전동기(모터)가 탑재된 제품들의 경우 제품이 작동하고 있을 때(운전전류)보다 처음 작동시킬 때(기동전류) 순간적으로 6-8배 이상의 전류를 사용하는데 이때 최대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갑작스런 과부하로 인해 콘센트가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세 번째는 『코드를 정확히 뽑기』  
가끔 콘센트에 꽂힌 플러그를 뽑기 귀찮다고 코드줄을 잡아 세차게 잡아당기거나 그것도 귀찮아서 발을 이용해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코드줄은 겉으로 보기에 한가닥으로 보이지만 피복 안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가느다란 심이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코드를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 잡아당기게 되면 전선 안에 있던 심들이 끊어지게 되면서 원래 흘러가야 할 전류가 갈 길을 잃게 되고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 전류는 결국 화산을 일으키거나 과열로 인해 화재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드 선은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말고 안전하게 직접 뽑아야 하겠다.
- 네 번째는 『문어발 사용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문어발식으로 많은 전기제품을 한꺼번에 꽂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멀티탭에 '과부하 차단' 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과부하 차단 기능은 사용 가능한 전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흐를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끊어주는 기능이기에 과부하로 인한 열로 인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종종 멀티탭에 달려있는 개별 스위치를 과부하 차단기능으로 오인해 안심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대기전력만 차단하는 역할을 할뿐 과부하가 발생해도 전력을 차단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구매할 때 참고해서 구입하시길 바란다.

### 행복한 지역 축제는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기고

**강주용** 장흥소방서장 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최근 전국 많은 지역에서 매우 여러 건의 각종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최근 제암산 철쭉제와 키조개 축제가 많은 관광객 방문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축제에 대비해 우리 장흥소방서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장 출동로 확보 ▲관계 기관 간담회 실시 ▲행사장 위험요인 점검 ▲관계인 안전교육 ▲행사장 주변 예방순찰 실시 등의 활동으로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소방서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축제 방문객 또한 다중 운집 행사에 참여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

행사장에서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요 안전 행동 요령으로는 첫째, 긴



급상황에 대비하여 행사장 비상대피통로, 배치안내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하여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둘째, 각종 시설 고정용 지지대나 노끈 등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며 이동한다.

셋째, 야외행사장의 경우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탈진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넷째,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행동하여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등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주변과 안전요원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이러한 행사장 안전요령을 군민들이 숙지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행사장 환경 조성에 동참하여 더욱더 안전한 지역 축제가 개최되길 기원한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